



(사)한국조경수협회
제25대 회장 김창옥

“자연을 공부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정서적인 휴식 문화공간으로 농장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물론 생산적인 농장의 기능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연을 사랑하고 공부할 수 있는 복합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조경수협회 신임 김창옥 회장의 농장을 찾아서

강 옥 르포작가

경남 진주시는 교육 문화의 도시로 유명한 고장이다. 또한 유서 깊은 예향(藝鄕)으로 역사가 점철된 현장이기도 하다. 고속도로 진주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자 만개한 벚꽃이 화사하게 도심을 수놓고 있다. 터미널에 마중 나온 세양조경개발 김창옥 회장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농장이 있는 산청으로 향했다. 유유히 흐르는 남강과 축석루, 진주성이 함께 어우러진 시가지는 그림같이 아름답다. ‘유등축제’가 열리는 가을이면 더 많은 외지 관광객이 진주를 찾는다고 한다.

지리산 자락의 산청(山淸)은 이름 그대로 산자수명한 청정 자연의 땅이다. 특히 물이 가장 좋기로 이름 났다. 가는 도중 싱그러움 봄의 훈풍과 새롭게 펼쳐지는 전원 풍경에 흠뻑 도취되었다. 농장은 진주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의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으로 가는 길목인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에 속한다. 도시



▲ 농장 정상에 서면 멀리 경호강이 바라 보인다.

200여 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주종은 소나무, 은행나무, 홍단풍, 이팝나무, 홍가시, 느티나무, 왕벚꽃나무 등이다. 조경수 목으로서의 나무는 클수록 부가가치가 있다. 모과나무, 홍단풍, 소나무 등은 다른데서 옮겨서 이식(移植)한 것이 많다고 한다.

다시 농원 정상에 올라갔다. 확 트인 시야로 사방을 내려다보았다. 시원한 바람결이 상쾌하기 그지없다. 심신이 새삼 맑아진다. 지리산 능선이 웅장하다. 저 멀리 흐르는 경호강의 모습이 평화롭게 다가온다. 또



▲ 잘 조성된 산등성이 도로

근교의 한적한 공원에 온 느낌이었다.

고요한 농원은 몇 개의 산등성이에 아름답게 조성되었다. 갖가지 나무와 꽃들이 형형색색의 자태를 발한다. 산허리를 따라 길을 내서 산 정상까지 차가 드나들 수 있다. 그러나 산책로서 그냥 길을 따라 걷는데 더한 운치가 있다. 소나무 숲에서 대 자연의 향기가 솔솔 품어 나온다. 그 향기를 따라 김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4만 5천여 평의 조경수 생산포지에는



▲ 활짝 핀 왕벚꽃나무

한 농원 곳곳에 활짝 핀 왕벚꽃나무가 감미롭게 물결치고 있다. 생기가 넘치는 ‘봄의 농원’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아늑한 휴식과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북돋아준다.

어찌 보면 김회장은 처음부터 조경사업과 인연이 깊었던 것 같다. 그의 성장 과정이 말해주고 있다. 진주에서 태어난 그는 진주 농림고를 나와 건국대 농대 원예과를 1973년에 졸업했다. 그 후 서울과 진주 등지에서 30여년 동안 농산물 생산과 유통업에 종사했다. 나무를 가꾸는 조경 사업에



▲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농장

을 허비했다고 말한다.

조경사업은 좋은 나무를 정성껏 가꾸는 것 못지않게 시의 적절하게 판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세양조경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나무들은 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궁극적이다. 판로는 주로 인터넷을 통한 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김회장은 앞으로 더욱 완벽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판로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김창옥회장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봉사와 함께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농민운동을 하며 권익을 위해 앞장섰고 진주시 새마을 청년회 창립 멤버로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그 후 진주시 의회 3대 시의원으로서 당선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한국 조경수협회 부회장을 6년째 역임한 그는 지난 3월 과감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협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한국 조경산업 발전과 협회를 이끌어갈 김회장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하며 사회에 이바지하는 우리 조경인들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이 1,200여명에 이르고 조경업계 연간 물량이 1조 5천억에 달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치 단결하여 협회 발전과 조경산업 발전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선

한 것은 14년이 되었다. 현재의 산청 농원은 6년 전부터 시작했다.

처음 이곳에서 조경수 농원을 시작할 때 어려움도 많았다.

“지역 주민들의 배타적인 정서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습니다. 인내하면서 꾸준히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산림법의 저촉과 규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김회장은 행정관청을 쫓아다니며 산림법 완화를 요구하는데 많은 시간



회장으로 선거공약으로 내걸은바 있는 ‘조경과’ 신설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김회장은 지금까지 건교부,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한 곳도 조경과가 없어 조경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조경과 신설을 위해 입법과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는 것. 그리고 육종(育種) 연구 사업을 위해 더 한층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회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정서적인 휴식 문화공간으로 농장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물론 생산적인 농장의 기능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연을 사랑하고 공부할 수 있는 복합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산청 농원을 앞으로 2년 정도 더 투자하고 개발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김회장은 말한다. 조경사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장 이익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 신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갖은 역경을 헤치고 조경사업에 매진해 오늘의 안정된 토대를 마련했다. 강한 의지력과 함께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그의 모습이다. 성공한 조경인으로서 무한한 꿈을 실현해 가는 김창옥회장은 부인 박주연씨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다.

한편 농원주변에는 다른 볼거리도 있다. 2Km 떨어진 곳에는 사찰 겹외사가 자리잡고 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 스님의 생가 터다. 또한 인근엔 고려말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와 처음으로 재배한 ‘문익점 시배지’도 있다. 수목원으로 들어오기 전의 면사무소 삼거리에는 유명한 추어탕 집이 있다. 담백한 맛으로 전국의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